

二陳湯에 대한 文獻的인 考察(上)

鄭承哲 · 金容辰*

中文抄錄

本篇通過調查各個時代的醫書中有關『太平惠民和劑局方』裏收錄的二陳湯的論述，綜合考察了本方的語源，組成，主治及藥物的差異點，得到了如下的結果。

1. 二陳湯首次收錄於宋朝時所編纂的『太平惠民和劑局方』之痰飲篇中。
2. 有關二陳湯語源的學說中主張了“陳皮半夏貴其陳久則無燥散之患。故名二陳”的說法，因『太平惠民和劑局方』中所記載的是橘紅而非陳皮，所以認為陳皮和半夏屬於六陳良藥而以二陳(陳皮，半夏)命名的主張缺乏可靠性。另外，因二陳(有二位陳氏姓人)參與了當時『太平惠民和劑局方』的編纂，故以他們的姓氏命名的說法也由部分學者提起。將來有必要對此進一步研究。
3. 二陳湯的功效可簡單概括為燥濕，化痰，利氣，和中。
4. 收載二陳湯的『太平惠民和劑局方』中，加味的是生薑和烏梅，但其後的大部分醫書中加的只是生薑，而只有仁齋直指，普濟方，保嬰撮要，醫宗必讀等醫書中加味了烏梅而已。況且加味烏梅的醫書中，本方的藥物組成是以橘紅替代了陳皮。這說明烏梅的加味與橘紅有着某種相關性。
5. 各醫書中收錄的二陳湯均由半夏·橘紅(陳皮)·茯苓·甘草等藥物組成。但有的醫書記載的是橘紅，而有的醫書則記載了陳皮(橘皮)。這是因為橘紅與陳皮(橘皮)在本草學上有區別的關係，於是方劑的組成上便出現了差異。
6. 就像‘百病之始生於痰’，‘十病九痰’的說法，綜合考察東醫寶鑑及其他醫書的內容後，得出用二陳湯可以治療由痰飲引起的各種症狀的結論。

綜上所述，今後有必要繼續研究有關‘二陳湯’的語源，藥物的組成上分別用橘紅及陳皮(橘皮)的差異，以及加味生薑·烏梅·大棗時方劑學上的解釋等等。

* 大田大學校 韓醫學科 醫史學教室

I. 緒論

韓醫學은 黃帝內經을 根幹으로 하여 神農本草經, 傷寒論 및 金元四大家 등 수많은 醫書와 醫家들에 의하여 綿綿히 繼承·發展되고 있다. 또한 基礎 學問인 醫哲學에서부터 生理, 病理, 診斷, 本草, 鍼灸 등 모든 分野에서 刮目할만한 成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韓醫學은 分科와 特科를 重視하는 傾向이 생기면서, 韓醫學의 基本 概念인 全一的 觀點이나 相對(待對)的 概念 등이 稀微해지거나 無視되면서 洋診韓治하는 韓醫師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西洋醫學의 診斷과 治療에 많은 時間과 努力을 投資하고 있는 韓醫師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또한 時代 潮流라고만 보아 넘길 수는 없다고 본다.

論症實驗醫訣¹⁾에 보면 金補中이나 許六味, 鄭平陳 등 하나의 處方 또는 基本 處方에다가 症에 따른 加減 및 加味하여 治療 效果를 極大化하여 當代에 名聲을 가지게된 醫家들이 있다. 그들이 비록 狹小한 地域에서 醫術을 行하여 多樣한 疾病을 接하지 못한 部分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基本 處方에 症에 따른 加減을 通하여 疾病을 治療한 것은 原因 治療에 充實하였기에 可能하리라고 본다.

醫書에 收錄된 수많은 處方들이 基本 處方에서 加味, 加減되거나 變方되어진 것은 自명한 일이므로 가장 基本이 되는 處方을 中心으로 研究 精進하여 醫術을 行하는 것이 溫故而知新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基本 處方 中 痰飲의 主治方인 二陳湯을 文獻의 으로 考察해 보고자 한다.

二陳湯이 痰飲으로 因한 諸疾患을 治한다고 하였는데 무릇 '百病之始生於痰'이라 하고 '痰者亂世之盜賊'이라 하여 모든 病이 痰을 兼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²⁾.

또한 '十病九痰'이라는 말과 같이 內外疾病에 痰을 兼한 것이 많으며 그 變化가 非止百端이니 이런 病症에 二陳湯을 宜用한다고 하였다³⁾.

二陳湯은 宋代의 醫書인 太平惠民和劑局方⁴⁾에 最初로 收錄된 이래 普濟方⁵⁾, 醫學正傳⁶⁾, 東醫寶鑑⁷⁾, 醫宗必讀⁸⁾, 醫方集解 등 많은 醫家들에 의하여 應用되어 臨床에 活用되어 오고 있는 處方이다.

本方の 構成 藥物은 半夏, 橘紅(陳皮), 茯苓, 甘草, 生薑, 烏梅로 組成되어 있으나, 여러 醫家들이 二陳湯을 使用한 例를 보면 構成 藥物의 變化와 構成 藥物의 用量 變化의 差異를 볼 수 있다. 이에 對한 변화의 차이를 研究하고, 二陳湯의 主治 證인 痰飲에 대한 概括的인 概念을 設定하고, 二陳湯의 構成 藥物에 對한 本草學的인 解說 등을 宋代 以後 時代別로 整理 考察하며, 東醫寶鑑에 記錄된 二陳湯이 臨床 活用한 內容을 整理하고 分析한 結果 새로운 知見을 얻었으므로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論

1. 二陳湯의 出典

二陳湯에 대하여 가장 먼저 記錄되어 있는 書籍은 宋代의 『太平惠民和劑局方』이다. 여기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아래와 같다.

二陳湯⁹⁾

二陳湯 治痰飲爲患 或嘔吐惡心 或頭眩驚悸 或中脘不快 或發爲寒熱 或因食生冷 脾胃不和.

2) 柳聖圭, 二陳湯의 効能에 關한 實驗의 研究, 大韓韓醫學會誌 通卷 第8號, 1984, P115.

3) 尹吉榮, 東醫臨床方劑學, 서울, 明實出版社, 1985, P86.

4) 劉景源點校, 宋 太平惠民和劑局編, 太平惠民和劑局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p. 141.

5) 明代 朱橚, 普濟方, 卷一百六十四 欽定四庫全書, pp. 752-495.

6) 明代 虞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p. 91.

7)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8, p. 134.

8) 明 李中梓, 李中梓醫學全書·醫宗必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255.

9) 劉景源點校, 宋 太平惠民和劑局編, 太平惠民和劑局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p. 141.

1) 朴義洙, 論證實驗醫訣, 서울, 日文社, 1979, pp. 69~71.

半夏湯洗七次 橘紅各五兩 白茯苓三兩 甘草一兩 半炙

右爲咬咀 每服四錢 用水一盞 生薑七片 烏梅一箇 同煎六分 去滓 熱服 不拘時候.

2. 『太平惠民和劑局方』¹⁰⁾에 대하여.

『太平惠民和劑局方』은 宋代의 '官藥所'의 賣藥處方의 指針書로 現代의 '藥局方'과 같은 冊이다.

官藥所는 熙寧 九年(1076年)에 처음 設立되어 太醫局熟藥所라고 불렸다. 元豐中(1078~1085年)에 太醫局方을 編訂하였고, 崇寧間(1102~1106年)에 다시 七局을 增設하였는데 '和劑', '惠民' 등을 앞에 붙여 서로 分別하였다. 大觀中(1107~1110年)에는 陳師文, 裴宗元 등에게 命하여, 過去의 藥局方을 補充하고 校正하여, 『校正太平惠民和劑局方』五卷을 編成케 하였는데, 本書는 21門으로 나누고, 297首의 方劑를 收錄하였다. 南宋 嘉定 元年(1208年)에 이르러 許洪이 또 校正과 注釋을 加하고 아울러 各條에 吳直閣得效名方과 其他 若干의 方劑를 附增하였고, 또 스스로 『和劑指南總論』3卷을 編하여, 卷首에 配列하였다. 以後에 또 寶慶(1225~1227年), 淳祐(1241~1252年)間의 增補를 거쳐 最後에 14門 788方으로 定着되었다.

本書는 宋元 間에 매우 널리 流傳되었으며 그 影響도 매우 컸다. 심지어 病變의 虛·實·寒·熱을 不問하고, 단지 既成處方으로 治病하는 風潮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에 朱震亨이 專門의 專門의 『局方發揮』란 冊을 지어 날카로운 批評을 하였다. 醫學理論이 더욱 發展함에 따라 明代 以後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風潮는 없어졌다. 그러나 그 中の 많은 處方은 實際 經驗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證狀에 잘 맞추어 쓰기만 하면 效果가 있다. 따라서 現在 까지도 많이 쓰이는 牛黃清心丸 같은 方劑도 모두가 冊에서 나온 것이다. 이로써 이 冊의 影響이 얼마나 컸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和劑局方』의 著者로 알려진 사람들에 대하여 고찰하면 아래와 같다.

1) 陳師文 ; 宋代의 醫家로서 臨安(지금의 浙江

臨安)人이다. 尙書庫部郎中, 提轄措置藥局 等職을 歷任하였다. 裴宗元 등과 共同으로 『和劑局方』을 校訂하여 『校訂太平惠民和劑局方』을 만들었다.

쓰인 方劑는 대부분 丸·散劑型으로, 應用에 便利하였으며, 그 중 일부 劑型은 너무 溫燥의 嫌點이 있었으나 비교적 좋은 治療效果를 갖추어 지금까지 여전히 臨床에 常用된다. 다른 著書로는 『指南總論』이 있다.

2) 裴宗元(12世紀初) ; 北宋의 醫家이며 徽宗時의 太醫令이다. 上京 前에 醫術로 越에서 이름이 있었다. 1107~1110年(大觀年間)에 奉議郎, 太醫令兼 措置藥局檢閱方書 等職을 지내고, 陳師文, 陳承 등과 함께 奉命하여 醫方을 校正해서 『校正太平惠民和劑局方』10卷을 編輯하였다. 이밖에도 『藥詮總辨』3卷을 撰하였다.

3) 許洪 ; 南宋의 醫家로서 太醫局의 助教로 任命되었으며, 아울러 四川總領所檢察惠民局에 派遣되었다. 1208年(嘉定元年)에 『太平惠民和劑局方』의 序文을 썼으며, 또 『指南總論』3卷을 篇次하여, 이 冊의 끝 부분(原來는 卷首에 있었다.)에 藥物合和, 炮製 및 幾十種病證, 治法 및 用藥을 簡述하였다.

4) 陳承 ; 北宋의 醫家로서 武林(지금의 安徽 黃池)人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母子가 淮陰間에 살면서 醫學을 研究하여 治病에 奇效가 많았다. 『本草』와 『圖經』二書가 널리 流轉되지 않음을 보고, 二書를 合編하여, 여기에 古今의 논說과 自己의 見解를 붙여 1092年(嘉祐7年)에 『重廣補註神農本草并圖經』을 編成하였다. 後에 將仕郎이 되어 藥局에서 方書를 檢閱하였으며, 1107~1110年(大觀年間)에는 또 陳師文, 裴宗元 등과 共同으로 『和劑局方』(後에 여러 번 增補하여 『太平惠民和劑局方』이라 改名하였다.)을 校訂하였다.

2. 宋代 기타 書籍에서 記錄

(1) 仁齋直指 卷十二¹¹⁾

二陳湯治食積諸痛

陳皮 半夏製各五兩 茯苓三兩 甘草炙一兩

10) 洪元植·尹錫烈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pp. 251~252.

11) 南宋 楊士瀛, 仁齋直指方 欽定四庫全書, pp. 744-270.

右咬咀每服參錢薑伍片烏梅半箇煎服寒多者加草
果熱多者加前胡如青皮檳榔縮砂白荳蔻之
類隨意增用

(2) 婦人良方大全¹²⁾

二陳湯 治中脘停痰，飲食少思，嘔逆等症。
陳皮去白 茯苓 半夏 各二錢 甘草炙 五分 用水
煎服。

3. 金元代 書籍에서 記錄

(1) 丹溪心法¹³⁾

二陳湯
半夏泡 陳皮 二兩半 白茯苓 半兩 甘草炙，七錢
半
右咬咀，每服四錢，水一盞，生薑七片，烏梅一個，
煎。

4. 明代 書籍에서 記錄

(1) 薛立齋醫學全書¹⁴⁾

1) 內科摘要 卷下 (PP27-28)
二陳湯
治脾胃虛弱，中脘停痰，或嘔吐惡心，或頭目不清，
飲食少思。
陳皮 茯苓 半夏 各一錢 甘草 炙，五分
上薑，水煎服。

2) 女科撮要 卷下 (P74)

二陳湯
治妊娠失調，脾胃不和，嘔吐痰涎，或飲食不思。
陳皮 茯苓 各一錢五分 半夏 一錢 甘草 五分
上薑水煎服。若因脾胃虛弱，用六君子。若因氣滯，
用紫蘇飲。

3) 外科發揮 卷三 (PP108-109)

二陳湯
和中理氣，健脾胃，消痰進飲食。
半夏 薑製 陳皮 炒 茯苓 各一錢五分 甘草 炙，

五分
作一劑，水一鍾，薑三片，煎六分，食遠服。

4) 外科樞要 卷四 (P291)

二陳湯
治脾虛，中脘停痰，嘔吐惡心；或頭目不清，飲食
少思等症。

陳皮 半夏 茯苓 各一錢 甘草 炙，五分
上薑，水煎。

5) 癘瘍機要 下卷 (P372)

二陳湯
治中脘停痰，嘔吐惡心，或頭目不清，飲食少思。

陳皮 半夏 茯苓 甘草 炙，各一錢

上薑棗水煎。

6) 保嬰撮要 卷七 (P578)

二陳湯
治痰飲，嘔吐惡心，或頭眩心悸，或中脘不快，或
因食冷物，胃氣不和。

半夏 橘紅 各五錢 白茯苓 三錢 甘草 炙，一錢
五分

上每服二三煎，烏梅一個，薑棗水煎服。

7) 校注婦人良方 卷二十四 (P996)

二陳湯
治中脘停痰，飲食少思，嘔逆等症。
陳皮 去白 茯苓 半夏 各一錢 甘草 炙，五分
水上煎服。

5. 清代 書籍에서 記錄

(1) 臨證指南醫案¹⁵⁾

臨證指南醫案 集方
二陳湯
半夏 陳皮 茯苓 甘草 生薑

(2) 張氏醫通 卷十六¹⁶⁾

二陳湯『局方』
治脾胃痰濕。
半夏 薑製，二錢半 茯苓 錢半 陳皮 略去白，一

12) 宋 陳自明，婦人良方大全 卷二十四，臺灣，文光圖書
有限公司，pp. 36-37.

13) 元 朱震亨，丹溪醫集 丹溪心法，北京，人民衛生出版
社，1995，p. 203.

14) 明 薛立齋，薛立齋醫學全書，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5) 清 葉天士，葉天士醫學全書，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p. 328.

16) 清 張璐，張璐醫學全書，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p. 529.

錢 甘草 炙，一錢

生薑三片 烏梅肉半個

上六味，水煎，空心溫服。燥痰，減半夏，生薑加麥門冬，竹瀝；鬱痰于咳，去半夏，用蜜煎薑。

加川貝母；火痰，加黃連，竹茹；老痰，加蛤粉，海石。

按：此方本內經半夏湯及金匱小半夏湯，小半夏加茯苓湯等方而立，加甘草安胃，橘皮行氣。

烏梅收津，生薑豁痰，乃理脾胃，治痰濕之專劑也。其靈樞半夏湯，見不得臥門。

6. 朝鮮時代 및 現代 書籍에서 記錄

(1) 東醫寶鑑¹⁷⁾

二陳湯

通治痰飲諸疾 或嘔吐惡心或頭眩心悸 或發寒熱或流注作痛 半夏製二錢 橘皮 赤茯苓 各一

錢 甘草炙五分 右剉作一貼薑三片水煎服(正傳)

方氏曰 半夏豁痰燥濕 橘紅消痰利氣 茯苓降氣滲濕 甘草補脾和中 蓋補脾則不生濕燥濕滲濕

則不生痰利氣降氣則痰消解可謂體用兼該標本兩盡之藥用者隨證加減(丹心)

III. 總括 및 考察

1. 『東醫寶鑑』의 痰飲에 대한 記錄

痰飲分清濁

痰者津液因熱而成 熱則津液熏蒸而稠濁 故名爲痰也(丹心)

水之與飲同出而異名也 人惟脾土有虧故所飲水漿不能傳化 或停於心下 或聚於脇間 或注於經絡 或溢於膀胱 往往因此而致病矣(直指)

飲者因飲水不散而爲病 痰者因火炎熏灼而成疾 故痰形稠濁飲色清痰 古方謂之飲 今人謂之痰 其實一也¹⁸⁾

王隱君痰論

痰證古今未詳方書 雖有懸飲留飲支飲痰飲諸飲之異而莫知其爲病之源 或頭風眩暈目昏耳鳴 或口眼

蠕動眉稜耳輪癢痒 或四肢遊風腫硬似痛非痛 或爲齒頰痒痛牙床浮腫而痛痒不一 或噫氣吞酸嘈雜嘔噦 或咽噎不利咯之不出嚥之不下 色如煤炆形如敗絮桃膠 蜆肉之類 或心下如停冰雪心頭冷痛時作 或夢寐奇怪 鬼魅之狀 或足腕痠軟腰背卒痛 或四肢骨節煩疼並無常所乃至手麻臂痛狀若挫閃 或脊中每有一掌如水凍之寒痛者 或渾身習習如虫行者 或眼眶澁痒口糜舌爛 甚爲喉閉等證 又或逸項結核似癭非癭 或胸腹間如有二氣交紐噎塞煩悶有如煙氣上衝頭面烘熱 或爲失志癲狂 或爲中風癱瘓 或爲勞瘵荏苒之疾 或爲風痹及脚氣之候 或心下怔忡驚悸如畏人將捕 或喘嗽嘔吐或嘔冷涎綠水黑汁甚爲肺癆腸毒便膿攣跛 其爲內外疾病非止百端皆痰之所致也 蓋津液既凝爲痰爲飲而洶涌上焦故口燥咽乾流而之下則大小便閉塞面如枯骨毛髮焦乾 婦人則經閉不通 小兒則驚搐搦搦 治法宜先逐去敗痰 然後看虛實調理 故製沈香滾痰丸(方見下)爲通治三焦痰飲之劑也。

劉宗厚曰 痰之爲病仲景論四飲六證無擇叙三因內外俱爲切當惟 王隱君論人之諸疾悉出於痰此發前人所未發可謂深識痰之情狀而得其奧者矣 製滾痰丸一方總治斯疾固爲簡便較之 仲景三因有表裏內外而分活下溫利之法則疎濶矣 況又有虛實寒熱之不同者哉¹⁹⁾

이상과 같이 痰과 飲의 區分 및 分類와 痰因 病理를 綜合하면, 痰飲은 氣血, 津液, 水飲 등의 生理的 水液이 火淫과 循環不利로 因하여 凝聚되어 病理的 水液으로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痰과 飲은 同一物이나 飲은 新而輕하고 清稀痰하고 痰은 久而重하고 稠濁한 點이 다르며, 分類에 있어 痰은 六淫의 病因과 臟腑에 起因하였고 飲은 部位에 따라 分類하였다. 또한 痰飲은 內傷, 外感, 七情所傷 모두가 原因이 되며 主로 脾의 運化作用 失調과 腎의 利水作用 失調로 發生한다.

2. 二陳湯의 名稱 語源에 對한 考察

二陳湯의 名稱에 對하여 二陳이라고 부르게 된

17)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8.

18)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8, p. 128.

19)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8, p. 128.

點에 많은 醫家들이 二陳湯에서 君藥으로 使用되는 半夏, 陳皮가 六陳良藥에 속하여 陳久한 藥材로서 더욱 藥效를 極大化시킬 수 있다는 點을 強調하기 위하여 二陳(半夏, 陳皮)이라고 命名하였을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醫方考 卷之一²⁰⁾

二陳湯

半夏 薑製 陳皮 去白 白茯苓 去皮, 各等分 甘草 炙, 減半

名曰二陳, 以橘, 半二物貴乎陳久耳. 正考見痰門.

2) 醫方集解²¹⁾

二陳湯濕痰局方

治一切痰飲爲病. 欬嗽脹滿. 嘔吐惡心. 頭眩心悸. (脾虛不能健運. 則生痰飲. 稠者爲痰. 稀者爲飲.

水濕其本也. 得火則結爲痰. 隨氣升降. 在肺則欬. 在胃則嘔. 在頭則眩. 在心則悸. 在背則冷.

在脇則脹. 其變不可勝窮也.)

半夏 薑製 二錢 陳皮去白 茯苓一錢 甘草五分 加薑煎.(薑能制半夏之毒. 陳皮半夏貴其陳久.

則無燥散之患. 故名二陳.)

3) 女科輯要按 卷下²²⁾

二陳湯『局方』治一切痰飲爲病, 咳嗽脹滿, 嘔吐惡心, 頭眩心悸.

半夏 薑製, 二錢 陳皮 去白 茯苓 一錢 甘草 五分 加薑煎.

半夏, 陳皮貴其陳, 久則無燥散之患, 故名二陳.

이렇듯 대부분의 醫家들이 半夏, 陳皮의 陳久性으로 因하여 燥性を 減少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處方이므로 二陳湯이라고 命名하였다고 主張하고 있으나, 本方의 出典인 『太平惠民和劑局方』에 收錄된 部分을 보면 陳皮가 아닌 橘紅으로 되어 있다. 局方이후 橘紅으로 표기되어 있기도 하고, 陳皮라고 記錄된 醫書들도 있다. 그렇다면 本方이

처음 기록될 宋代에는 陳皮가 아닌 橘紅으로 使用된 것이 分明하다고 보아야 한다. 六陳良藥의 하나인 陳皮가 아닌 橘紅을 混同하여 局方에 記錄하였다는 것은 論理上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二陳湯의 二陳은 陳皮, 半夏의 陳久性を 強調하기 위하여 命名하였다고 主張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오히려 『和劑局方』의 編纂에 參與한 醫師들 中 陳師文과 陳承이 本方을 創方하여 두 사람의 性을 따라서 二陳(陳師文, 陳承)이라고 名稱을 하게 되었다는 學說이 있다. 이 兩陳氏의 創方 學說이 二陳湯의 命名에 더욱 信憑性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對한 研究가 앞으로 進行되어야 할 것이다.

3. 二陳湯의 構成 藥物 中 橘紅과 陳皮의 本草學의 差異點 比較 및 諸醫書에 活用된 部分과 適應症을 比較 分析

(1) 橘紅과 陳皮의 本草學의 差異點

1) 橘紅

① 神農本草經²³⁾

橘柚. 味辛溫. 主胸中癢熱逆氣. 利水穀. 久服. 去臭下氣通神. 一名橘皮. 生川谷. (舊在果部. 非.)

名醫曰. 生南山. 江南. 十月采.

案說文云. 橘果出江南. 柚條也. 似橙而酢. 爾雅云. 柚條. 郭璞云. 似橙實酢. 生江南. 禹貢云. 厥包橘柚. 僞孔云. 大曰橘. 小曰柚. 列子湯問篇云. 吳楚之國有木焉. 其名爲柚. 碧樹而冬生. 實丹而味酸. 食其皮汁. 已憤厥之疾. 司馬相如賦. 有橘柚. 張揖曰. 柚卽橙也. 似橘而大. 味酢皮厚.

右木. 上品二十種. 舊一十九種. 考果部. 橘柚當入此.

② 新修本草²⁴⁾

橘柚味辛溫 無毒 主胸中癢熱氣 利水穀 下氣止嘔咳 除膀胱留熱 下停水 五淋 利小便 主脾不能消穀 氣充胸中吐逆 霍亂 止洩 去寸白 久服去臭 下

20) 明 吳崑, 吳崑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10.

21) 清 汪詒庵, 醫方集解, 서울, 成輔社, 1983, pp. 314-316.

22) 清 王孟英, 王孟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720.

23) 魏 吳普 等述, 神農本草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 44.

24) 蘇敬 等撰, 唐, 新修本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pp. 93-94.

氣通神 輕身長年 一名橘皮 生南山川谷 生江南 十月採

③ 新編 中國醫學大辭典²⁵⁾

橘紅 黃橘皮之去白者。〔性質〕與皮同。〔功用〕化痰，利氣。治肺寒咳嗽。〔雜論〕此物以產於廣東之化縣者為佳，而尤以其地之賴氏園老樹者為最，州署蘇澤堂前者次之(一說最佳)，為化痰之上品。然性能損伐真元，不宜多服，久嗽氣泄者忌之。參看[糖橘紅][化州橘紅]條。

④ 中藥大辭典²⁶⁾

橘紅(『綱目』)

【異名】芸皮，芸紅(『藥材資料匯編』)。

【基源】為芸香科植物福橘 *Citrus tangerina* Hort. et Tanaka 或朱橘 *C.erythrostrata* Tanaka 等多種橘類的果皮的外層紅色部分。原植物詳“橘”條

【採集】取新鮮橘皮，用刀仔下外層果皮，晾乾或晒乾。

【藥材】乾燥的外層橘皮呈長條形或不整齊紙狀薄片，厚不超過0.2毫米，邊緣皺縮卷曲。表面黃棕色或橙紅色，有光澤，密布棕黃色凸起的油點，果皮內面黃白色，密布圓點狀油室。質脆易碎。氣芳香，味微苦而後覺麻舌。以片大，色紅，油潤者為佳。

【炮製】橘紅：揀去雜質，刷淨，用時折碎。鹽橘紅：取淨橘紅用鹽開水均勻噴洒，使其吸收，晾乾。(每橘紅100斤，用食鹽2斤，溫開水適量化開澄清)蜜橘紅：將橘紅置鍋內，用文火炒至微黃色時，加入蜂蜜拌勻，再炒至略帶焦黃色，取出，晾乾。(每橘紅100斤，用蜂蜜25斤)

【性味】辛苦，溫。

①『本草原始』：“味辛苦。”

②『藥品化義』：“味辛苦帶辛，性溫。”

③『本草匯』：“性熱。”

【歸經】『本草匯言』：“入手足太陽，太陰，陽明經。”

【功用主治】消痰，利氣，寬中，散結。治風寒痰嗽，惡心，吐水，胸痛脹悶。

①『醫學啓源』：“理胸中，肺氣。”

②『綱目』：“下氣消痰。”

③『本草匯』：“能除寒發表。”

【用法與用量】內服> 煎湯，0.8~1.5錢；或入丸，散。

【宜忌】陰虛燥咳及久嗽氣虛者不宜服。

【選方】①治嘈雜吐水：真橘皮(去白)為末，五更安五分于掌心舐之，即睡。(『怪證奇方』)

②治痰飲為患，或嘔吐惡心，或頭眩心悸，或中脘不快，或發為寒熱，或因食生冷，脾胃不和：半夏(湯洗七次)，橘紅各五兩，白茯苓三兩，甘草(炙)一兩半。上細銼，每服四錢，用水一盞，生薑七片，烏梅一個，同煎六分，去滓熱服，不拘時候。(『局方』二陳湯)

③治途中心痛：橘皮(去白)，煎湯飲之，甚良。(『談野翁試驗方』)

④治風痰麻木：橘紅一斤，逆流水五碗，煮爛去滓，再煮至一碗，頓服取吐。不吐加瓜蒂末。(『摘元方』)

⑤治產後脾氣不利，小便不通：橘紅為末，每服二錢，空心，溫酒下。(『婦人良方』)

⑥治乳癰，未結即散，已結即潰，極痛不可忍者：陳皮(湯浸去白，日乾，面炒黃)為末，麝香研，酒調下二錢。(『聖惠方』橘香散)

【各家論述】①『藥品化義』：“橘紅，辛能橫行散結，苦能直行下降，為利氣要藥。蓋治痰須理氣，氣利痰自愈，故用入肺脾，主一切痰病，功居諸痰藥之上。佐竹茹以療熱呃，助青皮以導滯氣，同蒼朮，厚朴平胃中之實，合葱白，麻黃表寒濕之邪，消穀氣，解酒毒，止嘔吐，開胸膈痞塞，能推陳致新，皆辛散苦降之力也。”

②『本經逢原』：“橘紅專主肺寒咳嗽多痰，虛損方多用之，然久嗽氣泄，又非所宜。”

③『醫林纂要』：“橘紅專入于肺，兼以發表。去皮內之白，更輕虛上浮，亦去肺邪耳。”

2) 陳皮(橘皮)

① 中藥大辭典²⁷⁾

橘皮(『本經』)

25) 謝觀，新編中國醫學大辭典，서울，驪江出版社，2001，p. 231.

26) 江蘇新醫學院編，中藥大辭典，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2，pp. 2639~2640.

27) 江蘇新醫學院編，中藥大辭典，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2，pp. 2637~2639.

【異名】陳皮(孟詵), 貴老(侯寧極『藥譜』), 黃橘皮(『鷄峰普濟方』), 紅皮(『湯液本草』)。

【基源】爲芸香科植物福橘 *Citrus tangeri na Hort, et Tanaka* 或朱橘 *C.erythrosa Tana ka* 等多種橘類的果皮。原植物詳“橘”條。

【採集】10月以後採摘成熟果實, 剝取果皮, 陰乾或晒乾。

【藥材】完整的果皮常剖成4瓣, 每瓣多呈橢圓形, 在果柄處連在一起。有時破碎分離, 或呈不規則形的碎片狀。片厚1~2毫米, 通常向內卷曲; 外表面鮮橙紅色, 黃棕色至棕褐色, 有無數細小而凹入的油室; 內表面淡黃白色, 海綿狀, 并有短線狀的維管束(橘絡)痕, 果蒂處較密。質柔軟, 乾燥後質脆, 易折斷, 斷面不平。氣芳香, 味苦。以皮薄, 片大, 色紅, 油潤, 香氣濃者爲佳。

主產四川, 浙江, 福建。此外, 江西, 湖南等地亦產。

橘皮藥材, 除上述橘類的果皮外, 柑類及甜橙 *Citrus sinensis Osbeck*的果皮, 有時亦作橘皮使用, 商品名前者習稱“廣陳皮”, 參見“柑皮”條; 後者習稱“土陳皮”, 參見“橙皮”條。

【成分】福橘果皮含揮發油, 其中主要爲檸檬烯(Limo-nene)。……各種橘皮均含揮發油, 且多含黃酮(如橙皮?)等成分。

【藥理】①對心血管的作用 小量陳皮煎劑使離體及在爲蟾蜍心臟收縮力增強……前者每100克生藥中含55微克, 後者藥100微克。

【炮製】刷去泥土, 揀淨雜質, 噴淋清水, 悶潤後切絲或切片, 晾乾。

【性味】辛苦, 溫。

①『本經』: “味辛, 溫。”

②『別錄』: “無毒。”

③崔禹錫『食經』: “味辛苦。”

【歸經】入脾, 肺經。

①『品匯精要』: “行手太陰, 足太陰經。”

②『雷公炮製藥性解』: “入肺, 肝, 脾, 胃四經。”

③『本草求真』: “入脾, 大腸。”

【功用主治】利氣, 調中, 燥濕, 化痰。治胸腹脹滿, 不思飲食, 嘔吐噦逆, 咳嗽痰多。亦解魚, 蟹毒。

①『本經』: “主胸中瘕熱, 逆氣, 利水穀, 久服去

臭, 下氣。”

②『別錄』: “下氣, 止嘔咳, 除膀胱留熱, 停水, 五淋, 利小便, 主脾不能消穀, 氣沖胸中, 吐逆霍亂, 止泄, 去寸白。”

③『藥性論』: “治胸膈間氣, 開胃, 主氣痢, 消痰涎, 治上氣咳嗽。”

④『本草拾遺』: “去氣, 調中。”

⑤『日華子本草』: “消痰止咳, 破癥疝疝癖。”

⑥『醫學啓源』: “去胸中寒邪, 破滯氣, 益脾胃。”

⑦『綱目』: “療嘔噦反胃嘈雜, 時吐清水, 痰痞, 疝瘡, 大腸閉塞, 婦人乳癰。入食料解魚腥毒。”

⑧『隨息居飲食譜』: “解魚, 蟹毒。治噫噎, 脹悶, 疝瘡, 瀉痢, 便秘, 腳氣。”

【用法與用量】內服: 煎湯, 1~3錢; 或入丸, 散。

【宜忌】氣虛及陰虛燥咳患者不宜。吐血證慎服。

①『本草經疏』: “中氣虛, 氣不歸元者, 忌與耗氣藥同用; 胃虛有火嘔吐, 不宜與溫熱香燥藥同用; 陰虛咳嗽生痰, 不宜與半夏, 南星等同用; 瘡非寒甚者, 亦勿使。”

②『本草匯言』: “亡液之證, 自汗之證, 元虛之人, 吐血之證不可用。”

③『本草從新』: “無滯勿用。”

④『得配本草』: “痘疹灌漿時禁用。”

【選方】

①治脾胃不調, 冷氣暴折, 客乘于中, 寒則氣收聚, 聚則壅遏不通, 是以脹滿, 其脉弦遲: 黃橘皮 四兩, 白朮二兩上爲細末, 酒糊和丸如桐子大, 煎木香湯下三十丸, 食前。(『鷄峰普濟方』寬中丸)

②治胸痞, 胸中氣塞短氣: 橘皮一斤, 枳實三兩, 生薑半斤。上三味, 以水五升, 煮取二升, 分溫再服。(橘皮枳實生薑湯)

③治乾嘔噦, 手足厥者: 橘皮四兩, 生薑半斤。上二味, 以水七升, 煮取三升, 溫服一升。

(橘皮湯)

④治噦逆: 橘皮二升, 竹茹二升, 大棗三十枚, 生薑半斤, 甘草五兩, 人蔘一兩。上六味, 以水一斗, 煮取三升, 溫服一升, 日三服。(橘皮竹茹湯) ②方以下出『金匱要略』)

⑤治反胃吐食: 真橘皮, 以壁土炒香爲末, 每服

二錢，生薑三片，棗肉一枚，水二種，煎一種，溫服。(『仁壽直指方』)

⑥ 治痰膈氣脹：陳皮三錢。水煎熱服。(『簡便單方』)

⑦ 治大便秘結：陳皮(不去白，酒浸)煮至軟，焙乾爲末，復以溫酒調服二錢。(『普濟方』)

⑧ 治卒食噎：橘皮一兩(湯浸去瓢)。焙爲末，以水一大盞，煎取半盞，熱服。(『食醫心鏡』)

⑨ 治疳瘦：真橘皮一兩，黃連一兩五錢(去須，米泔浸一日)。上爲細末，研入麝香五分，用豬膽七個，分藥入在膽內，漿水煮，候臨熟，以針微扎破，以熟爲度，取出以粟米粥和丸綠豆大。每服十九至二，三十丸，米飲下，量兒大小與之，無時。久服消食和氣，長肌肉。(『小兒藥證直訣』橘連丸)

⑩ 治產後吹奶：陳皮一兩，甘草一錢。水煎服，即散。(『綱目』)

⑪ 治魚骨鯁在喉中：常含橘皮即下。(『聖惠方』)

【臨床報道】治療急性乳腺炎。取陳皮1兩，甘草2錢，每日1劑，煎服2次；產重者可每日2劑，煎服4次。據臨床觀察，發病在1~2天內治療者，大都獲得良好效果，治癒率在70%以上，一般2~3天即愈。發病時間愈長，療效愈差。已化膿者無效。

【各家論述】

① 『醫學啓源』：“橘皮能益氣，加青皮減半，去滯氣，推陳致新。若補脾胃，不去白，若理胸中滯氣，去白。『主治秘要』云，苦辛益氣，利肺，有甘草則補肺，無則瀉肺。”

② 『日用本草』：“橘皮，能散能瀉，能溫能補，能消膈氣，化痰涎，和脾止嗽，通五淋。中酒嘔吐惡心，煎飲之效。”

③ 『綱目』：“橘皮，苦能瀉能燥，辛能散，溫能和。其治百病，總是取其利氣燥濕之功，同補藥則補，同瀉藥則瀉，同升藥則升，同降藥則降。脾乃元氣之母，肺乃攝氣之籥，故橘皮爲二經氣分之藥，但隨所配而補瀉升降也。潔古張氏云，陳皮，枳殼，利其氣而痰自下，蓋此義也。同杏仁治大腸氣悶，同桃仁治大腸血悶，皆取其通滯也。按方勺『泊宅編』云，橘皮寬膈降氣，消痰飲極有殊功。他藥貴新，惟此貴陳。”

④ 『本草經疏』：“橘皮，主胸中痼熱逆氣，氣冲胸中嘔咳者，以肺主氣，氣常則順，氣變則逆，逆則熱

聚于胸中而成痼，痼者假也，如痞滿鬱悶之類也。辛能散，苦能泄，溫能通行，則逆氣下，嘔咳止，胸中痼熱消矣。脾胃運動磨物之臟，氣滯則不能消化，水穀爲吐逆，霍亂，泄瀉等證，苦溫能燥脾家之濕，使滯氣運行，諸證自瘳矣。肺爲水之上源，源竭則下流不利，熱結膀胱，肺得所養而津液貫輸，氣化運動，故膀胱留熱，停水，五淋皆通也。去臭及寸白者，辛能散邪，苦能殺蟲也。”

⑤ 『本草正』：“陳皮，氣實痰滯必用。留白者微甘而性緩，去白者用辛而性速。”

⑥ 『本草匯言』：“顧朽匏曰，橘皮總屬理氣之珍，若霍亂嘔吐，氣之逆也；泄瀉下利，氣之寒也；關格中滿，氣之閉也；食積痰涎，氣之滯也；風寒暑濕，氣之搏也；七情之鬱，氣之結也；橘皮統能治之。其去白開痰，留白和脾。蓋味辛善散，故能開氣；味苦善泄，故能行痰；其氣溫平，善于通達，故能止嘔，止咳，健胃和脾者也。東垣曰，夫人以脾胃爲主，而治病以調氣爲先，如欲調氣健脾者，橘皮之功居其首焉。然君白朮則益脾，單則利脾，佐甘草則和氣，否則損氣。同竹茹，芩，連治呃逆，因熱也；同乾薑，桂，附治呃逆，因寒也。補中用之以益氣，二陳用之除痰，乾葛用之以清胃解醒，平胃用之以消食去濕。”

⑦ 『本草崇原』：“按上古諸方，止曰橘皮個用不切，并無去白之說，李東垣不參經義，不體物性，承雷敷炮製，謂留白則理脾健胃，去白則消痰止嗽。後人習以爲法，每用橘紅治虛勞咳嗽……若去其白，其味但辛，止行皮毛，風寒咳嗽，似乎相宜，虛勞不足，益辛散矣。”

⑧ 『本草經百種錄』：“橘柚通滯皆香，而皮辛肉酸，乃肝膽通氣之藥也。故凡肝氣不舒，克賊脾土之疾，皆能已之。”

⑨ 『醫林纂要』：“橘皮，上則瀉肺邪，降逆氣；中則燥脾濕，和中氣；下則舒肝木，潤腎命。主于順氣，消痰，去鬱。”

⑩ 『本草求真』：“橘皮，利氣，雖有類于青皮，但此氣味辛溫，則入脾，肺而宣壅，不如青皮專入肝疏泄，而無入脾燥濕，入肺理氣之故也。……治火痰童便製，寒痰薑汁製，治下焦鹽水製。”

【備考】

① 『綱目』：“橘皮紋細，色紅而薄，內多筋脈，其味苦辛。柑皮紋粗，色黃而厚，內多白膜，其味辛甘。柚皮最厚而虛，紋更粗，色黃，內多膜無筋，其味甘多

辛小, 但以此別之, 即不差矣. 橘皮性溫, 柑, 柚皮性冷, 不可不知. 今天下多以廣中來者爲勝, 江西者次之, 然亦多以柑皮雜之, 柑皮猶可用, 柚皮則懸絕矣.”

② 張壽頤: “新會皮, 橘皮也, 以陳年者辛辣之氣稍和爲佳, 故曰陳皮. 市肆中有多種, 以廣東化州產者爲最佳, …… 其通用者則新會所產, 故通稱曰新會皮, 味和而辛不甚烈. 其福州及浙衢之產, 味苦而氣亦濁, 且辛辣更烈, 非佳品矣. 留白者通稱陳皮, 去白則曰橘紅, 降氣和中, 泄化痰飲, 宜留白爲佳, 若專作疏散用, 取其氣勝, 則宜橘紅, 連白者用一錢至一錢五, 去白者不當過一錢以上.”

上記의 內容을 參照하여 橘紅과 橘皮(陳皮)의 差異點을 分析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橘紅과 陳皮의 差異點比較表.

	橘紅	陳皮(橘皮)
藥材 區分	去白者	留白者
性味	味辛苦, 性溫速	味甘辛苦, 性溫
歸經	脾, 肺, 胃, 大腸, 小腸, 膀胱經	脾, 肺, 胃, 肝, 大腸經
功能	消痰, 利氣, 降氣, 寬中, 疏散結, 開痰	理氣, 調中, 燥濕, 化痰, 和脾, 補脾胃, 益氣, 去鬱
收錄된 醫書	宋代-和劑局方 明代-普濟方 醫宗必讀 玉機微義 保嬰撮要 醫學原理 清代-馮氏錦囊秘 錄雜證大小合 參	宋代-仁齋直指 婦人良方大全 明代-脈症治方 醫學正傳 刪補顏生微論 景岳全書 龔廷賢醫學全書 清代-醫方集解 湯頭歌訣 雜病證治 朝鮮-東醫寶鑑 醫門寶鑑

以上과 같이 볼 때 흰 部分을 除去한 것을 橘紅이라고 하는데 이는 降氣하고 和中하는데 應用하고, 痰飲을 泄化함에 있어서는 흰 部分을 남겨 놓은 陳皮가 좋으며 만약 疏散하는데 全的으로 쓰려면 氣가 乘한 橘紅이 더욱 나을 것이다. 아울러 宋代 以後의 醫書에서 混用하였으나 清代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醫書에 陳皮를 主로 使用하였음

을 알 수 있다.

4. 二陳湯의 構成 藥物 中 半夏, 茯苓, 甘草의 本草學的인 解說

1) 半夏²⁸⁾

【基源】 爲天南星科植物半夏的塊莖.

【性味】 辛, 溫, 有毒

【歸經】 入脾, 胃經.

【功用主治】 燥濕化痰, 降逆止嘔, 消痞散結. 治濕痰冷飲, 嘔吐, 反胃, 咳喘痰多, 胸膈脹滿, 痰厥頭痛, 頭暈不眠. 外消癰腫.

【用法與用量】 內服: 煎湯, 1.5~3錢; 或入丸, 散. 外用: 研末調敷.

【宜忌】 一切血症及陰虛燥咳, 津傷口渴者忌服.

2) 茯苓²⁹⁾

【基源】 爲多孔菌科植物茯苓的乾燥菌核.

【性味】 甘淡, 平.

【歸經】 入心, 脾, 肺經.

【功用主治】 滲瀉利水, 益脾和胃, 寧心安神. 治小便不利, 水腫脹滿, 痰飲咳逆, 嘔噦, 泄瀉, 遺精, 淋濁, 驚悸, 健忘.

【用法與用量】 內服: 煎湯, 3~5錢; 或入丸, 散.

【宜忌】 虛寒精滑或氣虛下陷者忌服.

3) 甘草³⁰⁾

【基源】 爲荳科植物甘草的根及根狀莖.

【性味】 甘, 平.

【歸經】 入脾, 胃, 肺經.

【功用主治】 和中緩急, 潤肺, 解毒, 調和諸藥. 炙用, 治脾胃虛弱, 食少, 腹痛便溼, 勞倦發熱, 肺痿咳嗽, 心悸, 驚癇; 生用, 治咽喉腫痛, 消化性潰瘍, 癰疽瘡瘍, 解藥毒及食物中毒.

【用法與用量】 內服: 煎湯, 0.5~3錢; 或入丸, 散. 外用: 研末搽或煎水洗.

【宜忌】 實證中滿腹脹忌服.

28) 江蘇新醫學院編,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pp. 775~777.

29) 江蘇新醫學院編,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pp. 1596~1598.

30) 江蘇新醫學院編,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pp. 567~570.

5. 二陳湯의 方劑 構成上 半夏, 陳皮, 茯苓, 甘草 四味 外에 加味되는 生薑, 烏梅 등에 關한 藥物 配合의 差異點 比較

二陳湯의 處方 構成上 基本 四味에 屬하는 半夏, 陳皮(橘紅), 茯苓, 甘草는 모든 醫書에 共通으로 使用 되고 있으며, 아울러 生薑이 加味되는 것은 局方 以後 모든 醫書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生薑의 “薑能除半夏之毒”하는 性質을 利用하여 半夏의 毒을 解消하는 目的이 있어서 基本의 所以로 加味되어 있다고 본다.

本方의 出典인 局方에는 烏梅가 加味되어 있는데, 그 以後의 醫書에 보면 仁齋直指, 普濟方, 醫宗 必讀, 張氏醫通, 傷寒緒論, 保嬰撮要 등에만 收錄되어 있다. 아울러 烏梅가 收錄된 醫書들 대부분은 橘皮(陳皮)가 아닌 橘紅을 使用하고 있다. 이것은 “橘紅, 辛能橫行散結, 苦能直行下降”, “橘紅專入于肺, 兼以發表”³¹⁾의 性質로 因하여 津液의 消耗될 憂慮가 있어서 “烏梅收津”의 功能을 利用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烏梅가 加味되지 않은 處方들은 橘紅이 아닌 陳皮(橘皮)를 使用하고 있어서, 烏梅와 橘紅의 相關性을 發見할 수 있다.

6. 二陳湯의 構成 藥物의 重量에 따른 功能 및 主治證에 對한 變化와 特異點은 어느 程度 가지고 있으나 君臣佐使에 屬하는 構成 藥物들이 確然하게 드러나는 部分은 發見하지 못하였다.

7. 二陳湯과 聯關된 處方

[橘皮半夏湯, 茯苓半夏湯, 小半夏加茯苓湯, 小半夏湯, 桔梗半夏湯, 香砂二陳湯, 清熱二陳湯, 升發二陳湯, 加味二陳湯, 和胃二陳湯, 增味二陳湯, 正傳加味二陳湯, 枳縮二陳湯, 大和丸, 半夏溫肺湯, 流氣飲子, 分氣飲, 分心氣飲, 杏蘇散, 參蘇飲, 六安煎, 金水六君煎, 清金降火湯, 解表二陳湯, 定喘化痰湯, 千縉湯, 導痰湯, 千縉導痰湯, 蘇子導痰降氣湯, 蘇子降氣湯, 導痰君子湯, 清熱導痰湯, 祛風導痰湯, 寧神導痰湯, 滌痰湯, 陶氏導痰湯, 芍辛導痰湯, 半夏白朮

天麻湯, 清暈化痰湯, 禹功散, 赤茯苓湯, 芎夏湯, 瓜薤枳實湯, 開氣消痰湯, 溫膽湯, 加味溫膽湯, 四七湯, 七氣湯, 加味四七湯, 追癆飲, 芎歸鱉甲散, 練陳湯, 小調中湯, 大調中湯, 黃連湯, 半夏瀉心湯]³²⁾

8. 二陳湯의 臨床 活用 方案

本方의 效能을 要約하여 말하면 燥濕, 化痰, 利氣, 和中하는 方劑로 위에서 列舉한 諸種病證의 모든 方劑가 本方의 加減變化로 廣範한 方劑로 擴充된 것이다. 本方은 痰飲이 化하여 百病이 된 것의 新久를 莫論하고 모두 治療하는 妙劑로 볼 수 있다. 그러나 標治의 方劑이므로 本方으로 治痰하여 病勢가 衰弱해지면, 脾胃를 補하여 그 痰涎을 化하고, 補肺하여 그 津液을 滋하며 陰虛多火하면 補腎으로 滋水하여 痰을 潤하고, 中焦의 燥를 潤하며 生火를 治療하는 것이다.

‘十病九痰’이라는 表現처럼 痰飲으로 因하여 發病된 病證에는 그 어느 處方보다 二陳湯을 먼저 活用하여 ‘先標後本’하는 治療原則을 가지고 臨床에 應用하는 것이 ‘溫故而知新’을 實行하는 길이라고 思料된다.

IV. 結論

『太平惠民和劑局方』에 收錄된 二陳湯을 各 時代別 醫書들을 調査하여 本方의 語源 및 處方 構成, 主治證, 構成 藥物의 差異點 등을 綜合·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二陳湯의 出典은 宋代에 編纂된 『太平惠民和劑局方』痰飲篇에 처음 收錄되어 있다.
2. 二陳湯의 語源에 對한 學說 中 ‘陳皮半夏貴其陳久則無燥散之患. 故名二陳’이라고 主張하는 內容은 本方의 出典인 『太平惠民和劑局方』에는 陳皮가 아닌 橘紅으로 表記되어 있으므로 因하여 陳皮 半夏가 六陳良藥에

31) 江蘇新醫學院編,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pp. 2639~2640.

32) 尹吉榮, 東醫臨床方劑學, 서울, 明寶出版社, 1985, p. 85.

屬하여 二陳(陳皮, 半夏)이라고 命名하였다는 主張은 妥當性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히려 『太平惠民和劑局方』編纂에 關與한 陳師文과 陳承이 本方 創方에 關與하여서 二陳(두 사람이 姓을 따서)이라고 名稱한 것이라 主張하는 學說이 提起되고 있다. 앞으로 이에 對한 研究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二陳湯의 效能을 簡單하게 要約하면 燥濕, 化痰, 利氣, 和中하는 效果를 가지고 있다.
4. 二陳湯의 出典인 『太平惠民和劑局方』에는 生薑, 烏梅가 加味되어 있는데 반하여 그以後 大部分의 醫書에는 加生薑하고 있으나, 加烏梅하는 醫書는 仁壽直指, 普濟方, 保嬰撮要, 醫宗必讀 등이 있을 뿐이다. 또한 加烏梅한 醫書에 보면 本方의 構成 藥物 가운데 陳皮가 아닌 橘紅으로 表記되어 있다. 이것은 加烏梅와 橘紅이 어떤 聯關性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 諸醫書에 收錄된 二陳湯의 基本 構成 藥物을 살펴보면, 半夏·橘紅(陳皮)·茯苓·甘草 등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橘紅과 陳皮(橘皮)가 同一하게 表記되지 않고 醫書에 따라 差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橘紅과 陳皮(橘皮)가 本草學의 區分이 되며, 아울러 方劑 構成 上에도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 ‘百病之始生於痰’, ‘十病九痰’ 이라는 말처럼 諸般醫書 및 東醫寶鑑에 나타난 內容을 綜合하여 보면, 痰飲으로 因하여 發生된 모든 證狀에 對하여 二陳湯을 治療에 活用할 수 있는 것이다.

以上の 內容을 通하여 볼 때 ‘二陳湯’의 語源에 對한 學說, 橘紅과 陳皮(橘皮)의 方劑 構成上의 差異點, 本方에 加味되는 生薑, 烏梅, 大棗에 對한

方劑學的인 解釋 등은 앞으로도 깊이 있는 研究가 進行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參考文獻

1. 柳聖圭, 大韓韓醫學會誌 通卷 第8號, 二陳湯의 效能에 關한 實驗的 研究, 1984.
2. 尹吉榮, 東醫臨床方劑學, 서울, 明寶出版社, 1985.
3. 劉景源點校, 宋 太平惠民和劑局編, 太平惠民和劑局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4. 洪元植·尹暢烈,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5. 楊士瀛, 南宋, 仁壽直指 卷十二, 欽定四庫全書.
6. 陳自明, 宋 婦人良方大全, 文光圖書有限公司 卷二十四.
7. 朱震亨, 元 丹溪心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8. 薛立齋, 明 薛立齋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9. 虞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10. 李中梓, 醫宗必讀 卷之九, 李中梓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1. 朱橚, 明代 普濟方, 欽定四庫全書.
12. 葉天士, 臨證指南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3. 張璐, 張氏醫通, 張璐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4. 汪詡庵, 醫方集解, 서울, 成輔社, 1983.
15.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8.
16. 朴義洙, 論症實驗醫訣, 서울, 日文社, 1979.
17. 吳崑, 醫方考, 吳崑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8. 王孟英, 女科輯要按, 王孟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9. 吳普等述 魏, 清 孫星衍 孫憑翼 輯, 神農本草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20. 蘇敬等撰, 唐, 新修本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21. 謝觀, 新編中國醫學大辭典, 서울, 驪江出版社, 2001.
22. 江蘇新醫學院編,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